

브레라 예술대학(Accademia di Brera) 계획안에 관한 연구 - 1935~1940년도 발표 계획안을 중심으로 -

A Study on Projects of Brera Academy - Focus on Projects Worked between 1935~1940 -

조 성 용* 최 진 희**
Cho, Sung-Yong Choi, Jin-Hee

Abstract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analyze the 'Brera Academy', worked between 1935-1940 at Milano in Italy. Giuseppe Terragni(1904-1943) is, as it is well known, one of the representative architects in the period of Italian rationalism architecture. In particular, his 'Casa del Fascio(1928-1936)' is evaluated as a representative work of this period.

The research is based on original drawings and letters, mostly produced by G. Terragni or relative person and office of this work. Through analyze on the design process, the research tries to reveal Italian rationalist's design method and strategy, especially in the educational facility project.

There are at least three deferent phases in the design process; in each phase, there are fundamental changes such as a structural system, relationships between the traditional garden and new building or spatial sequences. So, this study attempts to clarify the design methodology and strategy of the Italian rationalist in the design of educational facilities through analysis of the design process of Brera Academy.

키워드 : 브레라 아카데미, 학교시설, 테라니, 이탈리아 합리주의

Keywords : Brera Academy, School Facilities, G. Terragni, Italian Rationalism

1. 서론

1.1 연구의 배경

1935년 봄 이탈리아 밀라노의 브레라 예술대학장은 테라니(G. Terragni, 1904-1943), 린제리(P.Lingeri, 1894-1968), 피지니(L.Figini, 1903-1984)와 폴리니(G.Pollini, 1903-1991) 등 네 명의 건축가에게 예술대학 신축 계획안을 의뢰한다. 이 신축안은 예술대학 강의동, 전시동 뿐만 아니라 예술

고등학교도 포함하도록 하고 있는데, 브레라 아카데미의 역사적 중요성을 고려하면 당시로서는 매우 의미 있는 프로젝트였다.

테라니를 비롯한 밀라노 출신의 젊은 합리주의 건축가들이 이러한 중요한 프로젝트를 의뢰받게 된 배경에는, 이미 1913년부터 시작된 예술대학 확장계획이 20년 이상 진척 없이 정체되어 있는 답답한 상황이었다는 점도 작용을 한 것으로 보인다.¹⁾ 사실 이들 네 명의 건축가들은 모두 밀라노 폴리테크닉 출신의 신진 건축가들이었으며, 당시 프

* Professor, Ph.D. Dept. of Architecture, Kwangwoon Univ., Korea

** Associate Professor, Ph.D., Dept. of Architecture, Kyonggi Univ., Korea

Corresponding Author,

Tel: 82-31-249-9716, E-mail: jeanheechoi@gmail.com

이 논문은 2018년 광운대학교 교내 학술연구비 지원에 의해 연구되었음.

1) 이탈리아 정부는 1913년 특별법(legge n.856 del 22 giugno 1913)을 제정하여 브레라 아카데미를 확장하기 위한 컨소시엄을 구성한다. 이 법에 따르면, 아카데미는 밀라노 시내의 다른 위치로 이전하며, 종전의 부지에는 식물원을 이용하여 새롭게 전시관을 신축하도록 하였다. C. Baglione, Projects for the new building of Brera Accademy in Milano, in AA.VV., Giuseppe Terragni(1996), p.483

겹게 진행되던 이탈리아 합리주의 건축운동의 주역으로 활동하고 있었다.

이태리 합리주의 건축운동은 그루포7(Groupo 7)²⁾에 의하여 시작되었는데³⁾, 이 운동의 목적은 근대적 유형의 창조에 있었으며 그 과정에서 엄격한 논리와 지적인 합리성을 주장하였다. 특히, 전통과의 단절을 원치 않았고 오히려 그 전통을 고수해야 한다고 주장함으로써, 이전의 노베첸도(Novecento) 운동이 아카데미즘으로 변질된 과오를 반복하지 않았다.⁴⁾

한편, 1870년 통일국가를 이룬 이태리는 산업혁명의 과정이 주로 밀라노와 토리노를 포함한 북부지방에 치중되었고, 이러한 불균형은 로마를 포함한 남부의 고전주의자(academician)와 북부의 합리주의자(rationalist)들의 논쟁의 모태가 된다.⁵⁾ 이탈리아 합리주의 운동은 1931년 제2차 합리주의건축 전시회(밀라노)를 기점으로 고전주의자들과의 격한 논쟁에 휘말리게 된다. 특히 로마를 중심으로 한 피아첸티니(M. Piacentini)와의 논쟁은 결국 보수적인 로마 건축가들의 저항을 일으키게 되는데, 이는 테라니를 비롯한 합리주의 건축가들에게 커다란 문제를 일으키게 된다.⁶⁾ 특히 본 논문의 주제인 브레라 예술대학의 설계 진행과정에서 피아첸티니를 비롯한 고전주의자들의 반대 의견은 테라니의 계획안이 모두 거부되고 결국 미완성작으로 남게 되는 결정적인 원인으로 작용한다.

1.2 연구의 범위 및 방법

테라니를 비롯한 네 명의 건축가들은 1935, 1938, 1940년 세 번에 걸쳐 계획안을 제출하였는데, 이 과정에서 테라니는 중심적인 역할을 수행한 것으로 판단된다. 그 당시 제출된

2) 피지니(L.Figini), 폴리니(G. Pollini), 테라니(G.Terragni), 라르코(S. Larco), 라바(C.E.Rava), 프레테(G. Frette), 카스타놀리(V. Castagnoli) 7인으로 1926년 구성. 후에 카스타놀리는 1927년 리베라(A. Libera)로 대체되었다.

3) Lee Hee Won and Shim Woo Gab(1989), A Study on the Characteristics of the Italian Rationalism, Proceeding of Conference in the Architectural Institute of Korea, 1989, v.9, n.1, p.160

4) 노베첸토 운동은 전통과 기술적 진보간의 융합, 형태의 단순화 등을 요구하며 이태리에 근대 기능적 합리주의의 도래를 위한 바탕을 형성하였다. 그러나 과거와 미래와의 관계에 대한 딜레마에 빠져 1931년경부터는 고전적 전통의 옹호자로 변모하게 된다. Lee Hee Won and Shim Woo Gab, op.cit. p.160

5) Lee Hee Won and Shim Woo Gab, op.cit. p.160

6) Jung Jin Hyun/Park Man Sik, A Study on th Italian Rationalism and Giuseppe Terragni's Architecture, Proceeding of Conference in the Architectural Institute of Korea, 1989, v.9, n.1, p.164

도면자료 및 각종 문서들은 아직까지 테라니 아카이브에 보존되어있다. 따라서 본 연구는 세 번의 계획안을 원본 도면자료를 중심으로 분석해보고자 한다. 이를 바탕으로 예술대학 계획안의 특징을 분석한 후 네 명의 젊은 밀라노 출신 합리주의 건축가들의 예술대학을 통한 건축적 지향점을 분석하고자 한다. 특히 계획 진행과정에서 로마의 고전주의자들과의 논쟁을 바탕으로 이탈리아 근대시기에 있었던 전통과 혁신 논쟁을 재구성해 보고자 한다.

2. 계획안의 건축적 특징 분석

1932년 예술학교 건립위원장인 판탈레오(G.I. Pantaleo)는 부지를 기존의 식물원 위치로 변경하기로 결정한 후, 계획안을 작성할 건축가로 브레라 아카데미 건축과 교수로 재직중이던 마리아니(E. Mariani)를 지명하였다.⁷⁾ 마리아니는 1934년 세부계획안을 제출하지만 당시 대학장으로 새롭게 부임한 발다메리(R. Valdameri)는 이 계획안을 “건축적 관점에서 브레라 예술대학의 예술적 전통에 부합하지 않는다⁸⁾”는 이유로 거부한다. 이에 더하여 대학장은 린제리와 피지니에게 완전히 새로운 계획안을 다시 작성하도록 제안하였으며, 거의 동시에 폴리니와 테라니가 계획팀에 합류하게 된다.⁹⁾ 마리아니는 이 제안을 받아들여지게 되는데, 마리아니 대학장의 이러한 과감한 결정은 당시 뜨거웠던 합리주의 건축논쟁의 주역들이 이 프로젝트의 주인공으로 부상하는 결정적인 계기가 되었다.¹⁰⁾

2.1 1차 계획안(1935)

(1) 계획안의 특징 분석

1935년에 제출된 첫 번째 계획안은 여러 측면에서 파격적인 내용을 담고 있다. 이 계획안에 참여한 건축가들 중에서 각자의 아이디어를 계획 부분별로 유추하기는 현 상황에서는 불가능하다. 다만 계획이 진행되면서 작성된 편

7) 당시 식물원은 태풍으로 커다란 피해를 입었기 때문에, 부지활용에 대한 저항이 덜 할 것으로 판단했으며, 또 국유지 활용으로 인한 건축비 절감을 의도하였던 것으로 판단됨. C. Baglione (1996), op. cit., p.483 참조

8) 판탈레오 대학장은 이 계획안을 건축주인 교육부장관에게 보고조차 하지 않고, 부적합 의견서만 제출하였다. C. Baglione (1996), op. cit., p.484

9) lettera di Figini e Lingeri a Valdameri, 13 luglio 1935, AGT, Accademia di Brera. (cfr.) C. Baglione(1996), op. cit., p.484

10) 사실 린제리는 마리아니의 직접적인 제자이기도 하였지만, 테라니를 비롯한 세 명의 건축가들도 밀라노 폴리테크닉 출신의 건축가들로서 이들 신진건축가들에게 작품 활동의 기회를 제공하는 것에 대승적 결단을 내린 것으로 판단됨.

지나 보고서 등 여러 정황으로 판단할 때 계획안의 작성에서 핵심적인 아이디어는 테라니가 주로 제시한 것으로 판단되는데, 그 구체적인 내용은 작품분석과 함께 살펴보고자 한다.

1935년 계획안의 가장 큰 특징은, 교량형 철골구조를 차용하여 필로티형 건축을 제시한 구조적 측면, 기능과 목적에 따라 평면을 명확하게 분리한 합리적 평면구성, 그리고 단면의 공간구성을 목적과 용도에 따라 층고를 자유롭게 구성하거나 복층을 사용한 공간적 자율성 등 세 가지 측면에서 분석할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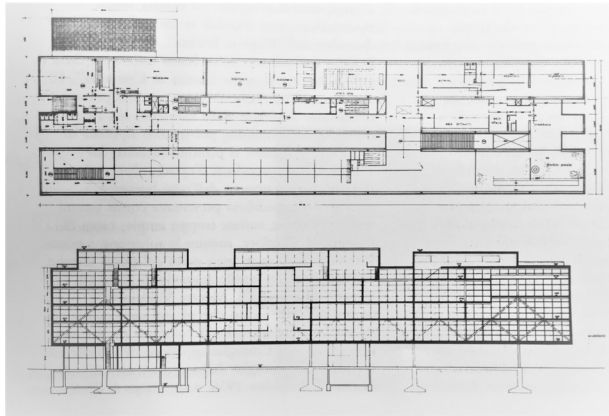


Figure 1. 2nd Floor Plan, Section(1935 project)

출처: AGT(Archivio Giuseppe Terragni)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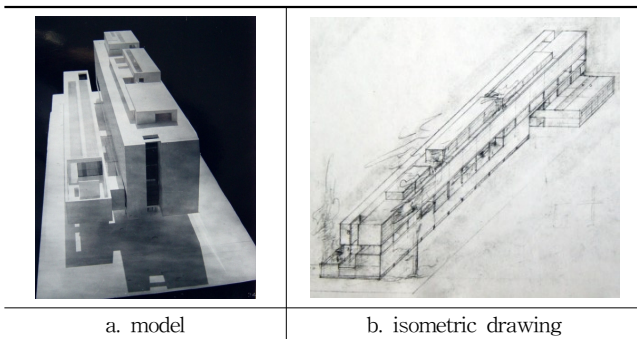


Figure 2. study model(a) and Isometric drawing(b)(1935 project)

출처: MAARC(www.maarc.it)

Figure 1의 평면에서 보는바와 같이 평면은 6층 높이의 강의 및 연구동과 단층 높이의 전시동으로 분절되어있다. 강의동은 다시 기능에 따라 강의시설, 설비시설 및 복도 등 3단계로 구분된 층위로 구성하고 있어 기능적 합리주의 원리를 철저히 유지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강의시설과 복도 사이에 위치한 중공 공간은 계단 및 설비시설을 배치하고 자연환기 및 채광이 가능하도록 고려하였다. 단층으로 구성된 전시동의 동측에는 옥상정원을 배치하여 외부 조각전시장 및 휴식공간으로 계획하였다. 강의동과

전시동 사이는 볼륨이 분리되어 있으며, 그 사이에 정원에서 2층으로 오르는 대형 계단을 설치하여 주 진입동선으로 이용하도록 고려하였다.

Figure 3은 필로티형 구조를 채택한 계획 의도를 명확히 보여준다. 사실 이 계획안은 유서 깊은 식물원 겸 전통 정원의 거의 절반을 차지해야 하는데¹¹⁾, 정원 및 수목의 보존 문제는 건축가들의 큰 고려사항이었던 것으로 판단된다. 단면에서 보는 것과 같이 지상층의 토공사를 최소한으로 할 수 있는 교량형 구조와 장스팬(24m) 철골구조의 도입, 그리고 볼륨의 분절과 중공 공간의 확보는 이러한 문제의 해결책으로 고안된 것이었다.¹²⁾ 이로서, 지상층을 필로티로 올리고, 유리의 적극적인 사용으로 투명성을 확보하여 식물정원의 경관에 최소한으로 개입하려는 의도가 작품에 잘 나타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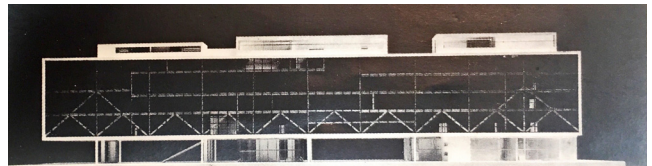


Figure 3. model, north side view(1935 project)

출처: AGP(Archivio Gino Pollini)

사실 당시에 철골구조는 주로 교량, 공장 및 생산시설에서 주로 사용되었으며, 일반건축에서의 사용은 흔치않았다. 다만 1930년대를 전후로 철골 및 유리의 적극적 사용은 유럽 건축계에서 커다란 주체로 부상하기 시작하였는데, 브레라 계획안 역시 이러한 경향을 의도적으로 채택하고 건축적 표현수단으로 활용한 것으로 판단된다. Figure 1의 단면 및 Figure 3에서 나타나는 사선방향 철골구조물은 북측면의 투명한 유리마감으로 인하여 건축물 외관의 주요 모티브로 표현되고 있음은 이러한 전위적 건축요소 사용의 의도성의 근거로 들 수 있을 것이다.

종합하면 평면구성의 합리성, 공간의 유동성과 더불어 근대적 신기술과 재료의 채용은 합리주의 건축가들이 제안한 1935년 계획안의 핵심적인 특징으로 분석할 수 있을 것이다.

이 계획안의 외형적 특징은 전반적으로 피지니와 폴리니의 건축적 경향과 유사하다는 의견이 우세하다. 하지만 이 작품과 같은 해에 발표된 ‘식물재배사 빌라’에서 테라

11) 브레라 식물정원의 연면적은 6,500㎡이었으며, 신축계획안은 그 중 3,600㎡를 차지하도록 계획됨.
12) 건축가들 스스로가 계획안 보고서에서 특별히 정성을 들여 식물원 보존에 최선을 다하고 있음을 설명하고 있다. C. Baglione(1996), op. cit., p.484

니는 이미 철골구조를 사용한 필로티형 주거를 발표하였다는 점을 간과할 수 없다(Figure 4). 이러한 점에서 주세페 테라니는 이 작업에서 핵심 아이디어를 제시하였을 것으로 판단된다. 이후 작업에서도 다른 건축가들은 테라니의 의견에 많은 부분 의존하였던 기록이 남아있고, 심지어는 두 번째 계획안에서는 의견 조정이 실패하여 테라니는 별도의 계획안을 제출하기도 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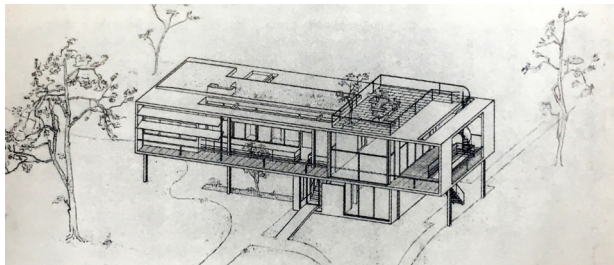


Figure 4. Floriculturist's Villa(Terragni, 1935)

출처: AGT(Archivio Giuseppe Terragni) 41/1/d

(2) 부적합 판정과 논쟁의 촉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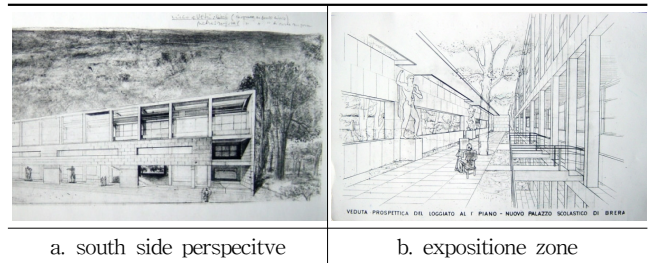
먼저 이 계획안에 대한 부정적 의견은 로마의 무솔리니로부터 제기된다. “브레라는 본연의 모습으로 남아있어야 한다¹³⁾”라고 기록된 무솔리니의 발언은 이미 보수적 전통주의로 복귀한 로마 건축계의 의견을 반영한 것이라 할 수 있어서, 이후 브레라 계획안의 진행은 커다란 난관을 맞이한다. 특히 무솔리니의 의견을 근거로 당시 파시스트 정부의 건설부 및 산하단체인 예술감독위원회는 철골구조의 사용 및 지나친 유리재료의 사용을 공격하기에 이른다.¹⁴⁾ 하지만 이러한 기술적인 이유를 감안하더라도 조반노니(G. Giovannoni, 1873-1947), 피아첸티니(M. Piacentini, 1881-1960)와 같은 로마 고전주의자들이 중심인 예술감독위원회의 반론은 밀라노 합리주의 건축가들의 지나치게 혁신적인 계획안에 대한 본질적 거부감에서 비롯되었다는 점은 다음 기록에서 확인할 수 있다.

“심의 과정에서 위원회는 이 계획안의 이상한 합리성에 주목하였다. 철골구조는 기둥위에 놓여있어 본래의 장스펜 구조의 장점을 취하지 못할 뿐만 아니라, 건축물의 진동

에도 취약하고 필요 없는 비용 지출만 발생시킨다. 특히 평면구성 및 기존 건축물과의 관계는 더욱이 합리적이지 않게 계획되었다.”¹⁵⁾

로마 고전주의자들의 합리주의 건축에 대한 공격은 철저히 전문적인 관점에서 제시되었다. 그러나 그 행간에 나타난 아방가르드 건축에 대한 보수주의적 반감은 숨길 수가 없었다.

2.2 2차 계획안(1938)



a. south side perspective

b. expositione zone

Figure 5. 2° project(Pollini and orther, 1938)

출처: AGP(Archivio Giuseppe Pollini)



Figure 6. 2° project(Terragni, 1938)

출처: AGP(Archivio Giuseppe Pollini)

1차 계획안에 대한 논란 과정에서 테라니를 비롯한 네 명의 건축가들은 무솔리니와 로마에서 두 차례의 면담을 진행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계획안은 끝내 무산되고 만다. 이 과정에서 테라니는 더 이상 브레라 예술대학 계획안에 관심을 보이지 않았던 것으로 보인다.¹⁶⁾ 이에 더하여 브레라 아카데미 측은 다시 식물원 부지의 사용을 최소한으로

13) ACS, PCM 1934-36, 5/1 8354, in C. Baglione(1996), op. cit., p.486

14) 사실 1800톤에 달하는 철골의 사용은 전체 공사비의 44%를 차지하고 있어 당시로서는 과도한 비용지출이 문제시 되었다. 특히 이 시기 즈음에 이탈리아 파시스트 정부는 일반건축에 철골의 사용을 금하는 법령을 공포하기도 하여서, 건축적 논쟁 이전에 경제적 이유도 상당부분 작용한 것으로 판단된다. C. Baglione(1996), op. cit., p.486

15) ACS, PCM 1934-36, 5/1 8354, in C. Baglione(1996), op. cit., p.487

16) 폴리니는 한 편지에서 “테라니는 수 차례의 면담에도 참석하지 않는 것으로 보아 이미 이 계획안에 관심이 없는 듯하다.”라고 기록하고 있다. 이 시기에 테라니는 코모의 ‘카사탈 파쇼’와 ‘산텔리아 유치원’ 계획에 전념하고 있었으며, 1937년에는 린제리와 함께 로마의 E42 현상설계에 참여하는 등 왕성한 활동을 하고 있었다.

축소하여 식물원 보존으로 방침을 변경하고 신축건물은 예술대학만 수용하도록 건축계획을 변경하기에 이른다.¹⁷⁾ 이러한 대대적인 계획변경에도 불구하고 테라니를 제외한 세 명의 건축가들은 새로운 2차 계획안을 다시 제출하였다. 그러나 이 계획안에 테라니는 끝까지 서명을 거부하며 ‘건축가의 전문성에 반하는 수정안에는 서명할 수 없음’¹⁸⁾을 분명히 밝히기에 이른다. 이 시기에 테라니와 다른 건축가들 사이의 견해는 극복하지 못할 정도로 차이가 있었던 것으로 판단되는데, 이는 테라니 혼자서 별도의 계획안을 작성한 사실만 보아도 유추 가능하다.

폴리니를 중심으로 작성한 2차 계획안(Figure 5)은 연면적 2,695㎡의 규모에, 4개 층 17.2m의 높이를 갖는 건물로 축소되었다. 입면투시도에서 보이는 바와 같이 더 이상 필로티구조는 채택하지 않았으며, 철골구조는 RC구조로 대체되었다. 남측 진입면에는 2개 층 규모의 로지아를 두고, 이에 연결하여 조각전시장을 옥상정원에 배치하였다. 이 계획안에 나타나는 육중한 외관과 기념비적 상징성의 추구는 1차 계획안의 기본정신인 투명성, 가변성, 기술적 진취성과는 많은 차이가 날 뿐만 아니라 Figure 6에서 보이는 테라니 계획안과도 근본적인 차이가 있음을 쉽게 파악할 수 있다. 테라니 계획안은 많은 부분에서 1차 계획안과 유사점을 보인다. 전시동은 필로티 정원으로 변경되었으나 중앙계단을 통한 접근은 유지하고 있다. 특히 건축물과 철골과 콘크리트 구조가 혼용된 그리드 외벽의 분리를 통한 건축물의 깊이를 표현하는 특징은 당시 테라니의 작품에서 공통적으로 탐구되고 있는 주제와 일맥상통한다.

2.3 3차 계획안(1940)

1939년 정부는 2차 계획안에 대한 심의를 통과한 후 린제리로 하여금 실시설계안을 수립하도록 통보한다. 다만 네 명의 건축가가 모두 참여해야 한다는 조건을 달았지만 그해 겨울 테라니는 이미 군대에 입대하여 크레모나에서 복무중이었다. 더구나 테라니는 이미 계획안에 대한 불참 의사를 명확히 한 후이므로 건립위원회는 의견통합과 최선의 계획안 작성을 위하여 네 명의 건축가를 대상으로 별도의 설계경쟁을 제안하기에 이른다.¹⁹⁾ 테라니의 3차 계획안은 이러한 제안을 토대로 1940년 봄에 린제리와 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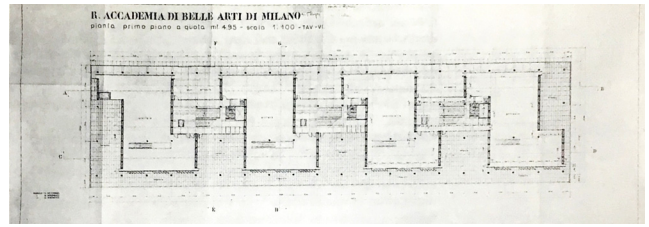


Figure 7. 3° project, 2° Floor plan(Terragni, 1940)

출처: ACS(Archivio Centrale di Stato)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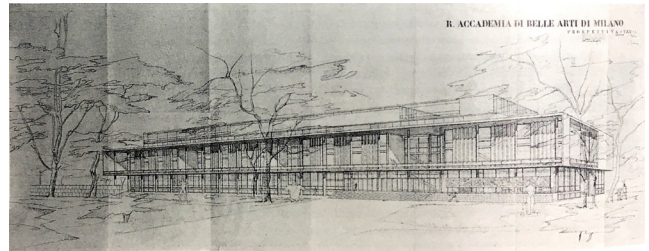


Figure 8. 3° project, prospect(Terragni, 1940)

출처: ACS(Archivio Centrale di Stato)

께 작성한 것으로 사료된다.²⁰⁾

정부로부터 이 작업의 책임을 맡은 린제리는 테라니 계획안을 전적으로 지지하였으므로, 위의 Figure 7, 8 계획안은 테라니가 1943년 전장에서 사망하기 전에 남긴 마지막 유작으로 판단할 수 있을 것이다.²¹⁾

이 3차 계획안은 2층 평면과 투시도 등 단 두 장의 도면만이 보존되어 있다. Figure 7의 평면은 102.5×22m 규모의 장방형 건축물이 반지하층을 포함한 지상 3층에 15.5m 높이의 규모로 계획되었다. 평면계획에서 가장 특징적인 점은 ‘Z’형 강의실과 그 사이를 연결하는 서비스 공간의 배치이다. 강의실의 남측면은 석재로 마감된 사선형 블라인드 스크린을 통하여 채광량을 조절하도록 계획되었다. Figure 8의 투시도에서 볼 수 있듯이 외부공간은 상하부 2중 로지아에 의하여 전체 입면형태가 특징지어진다. 이는 브레라 아카데미의 원래 건축물 중정에서 전통적인 모습을 차용한 것으로 테라니 스스로가 밝히고 있다. 특히 이러한 계획방식은 테라니가 참여한 E42 설계공모 계획안에서도 동일하게 사용되고 있어, 당시 테라니가 집중했던 건축적 지향점을 잘 드러내고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구조적인 측면에서 이 계획안은 1차 계획안과는 완전히

17) 변경된 사용면적은 기존의 3,600㎡에서 950㎡로 축소되어 기존의 연구 및 전시 복합용도로는 불가능하게 되었다.

18) 테라니가 피지니와 폴리니에게 보내는 편지. 30 marzo 1938, AGT, Accademia di Brera.

19) Iodo Valdameri, 10 gennaio 1940, AGT, Accademia di Brera, C. Baglione(1996), op. cit., p.490

20) registrazione delle spese per il progetto esecutivo, gennaio 1941, AGT, Accademia di Brera), C. Baglione(1996), op. cit., p.490.

21) 테라니는 1940년 봄 허가를 받고 잠시 현업에 돌아왔던 것으로 기록되어있다. 이 작업 후 군에 다시 복귀한 테라니는 1943년 불가리아 전장에서 39세의 나이로 전사하게 된다.

다른 해결방법을 제시한다. 가로 5.3m 세로 7.4m의 간격으로 배치된 기둥모듈은 철골이 전혀 보강되지 않은 시멘트 기둥으로 되어있다.²²⁾

이 해결 방법에 대하여 테라니는 상당히 만족하였던 것으로 판단된다. 그는 1940년 그의 동료에게 쓴 편지에서 “평면구성은 이전 계획안(1935)에 비하여 훨씬 발전되었다. 특히 철골보강 없는 시멘트 기둥을 사용해야 하는 문제를 이보다 더 잘 해결할 수는 없을 것이다”라고 쓰고 있어, 이 해결안에 충분히 만족했음을 보여준다.

5. 결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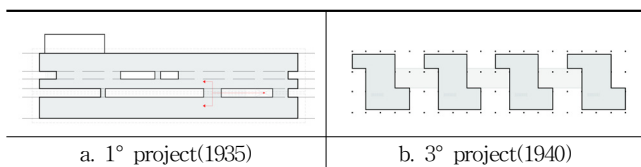


Figure 9. Plan Diagram

브레라 아카데미는 세 번에 걸친 계획안이 발표될 시점인 1930년 당시에도 이미 유서 깊은 예술 학교이자 박물관으로서 밀라노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절대적이었다. 따라서 역사적인 건축물의 한편에 정원의 일부를 차지하는 계획안은 필연적으로 전통과 근대성(modernity)이라는 첨예한 논쟁에 휘말릴 수밖에 없는 운명이었다. 특히 이탈리아 근대건축의 후원자를 자처하던 무솔리니의 보수주의적 태도변화는 테라니가 제안하는 혁신적인 계획안이 모두 미완성으로 남게 하는데 결정적인 역할을 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들 세 가지 계획안에서 보여준 평면구성의 합리성과 명료함. 복층과 천창의 적극적 사용을 통한 공간구성의 풍부함, 구조적 혁신성은 테라니의 유작으로서 손색이 없을 것으로 판단되어, 이 작품은 이탈리아 합리주의 건축의 지향점을 판단하는데 매우 중요한 작품으로 평가받아야 할 것으로 사료된다.

Figure 9의 다이어그램에서 보는 바와 같이, 학교건축으로서 강의공간과 지원공간의 배치방법은 1차 계획안과 3차 계획안에서 커다란 변화를 보인다. 1차 계획안에서 동서방향으로 놓인 커의 중첩을 통한 기능의 배치는 동선을 해결하는 동시에 채광과 공간조직의 효율성을 유지하려는 시도였다. 3차 계획안에서는 이러한 합리성이 한층 강조되

어 강의동 자체의 채광량 조절과 서비스 동선의 독립을 실현함과 동시에 내부와 외부의 조화로운 연결은 진일보한 해결방법을 보여주고 있다. 두 계획안 모두에서 제안한 방법은 기능배치의 가변성과 유연성 측면에서 매우 효과적인 계획방법이었다. 또한 고령의 수목을 포함하는 식물원과의 관계성에 대한 고민은 다양한 중정과 투명성의 확보를 통하여 해결하고 있다는 점 또한 주의 깊게 고려해야 할 것이다. 이 작품은 고전주의자들의 양식적 역사주의에 반하여 테라니를 비롯한 합리주의자들이 어떠한 건축적 지향점을 갖고 있었는지를 가장 명료하게 보여주고 있는 작품이라 평가할 수 있을 것이다.

References

1. C. Baglione, Projects for the new building of Brera Academy in Milano, in AA.VV., Giuseppe Terragni, Electa, Milano, 1996
2. Lee Hee Won and Shim Woo Gab(1989), A Study on the Characteristics of the Italian Rationalism, Proceeding of Conference in the Architectural Institute of Korea, v.9, n.1, pp.159~162, 1989-04
3. Jung Jin Hyun and Park Man Sik, A Study on th Italian Rationalism and Giuseppe Terrangi’s Architecture, Proceeding of Conference in the Architectural Institute of Korea, v.9, n.1, pp.163~167, 1989-04
4. Kim, Eui Yong, A Study on the Modernity and Historicity of Italian Rationalism Architecture, Journal of the Korean Institute of Educational Facilities, v.19 n.4, pp.117~124, 2003-04
5. Thomas L. Schumacher, Surface and Symbol. Giuseppe Terragni and the Architecture of Italian Rationalism, Princeton Architectural Press, 1991
6. Cho Sung Yong, A Study on the architectural characteristics of Casa GIL(L. Moretti, 1936) in Rome, Journal of the Korea Institute of Youth Facility and Environment, vol.8 n.4 , 2010. 11., pp.121~129
7. MAARC, Progetti per la Nuova Sede dell’Accademia di Brera a Milano(www.maarc.it)
8. Archivio Terragni, Nuova sede delle Scuole d’Arte dell’Accademia di Brera(www.archivioterragni.it)

22) 이탈리아는 1939년 구조기둥에 철재의 사용하는 법을 공포한다. 주택건축의 경우는 1937년에 이미 이 규정이 적용되고 있었다. C. Baglione(1996), op. cit., p.492.

접수 2019. 8. 15
1차 심사완료 2019. 8. 25
게재확정 2019. 8. 26